

Japan Weekly Digest

2012. 3. 24. ~ 2012. 3. 30

☐ 금주의 이슈

- 샤프, EMS 최대기업 홍하이와 자본제휴
- 소비세증세 관련법안 각의결정

☐ 일본기업전략

- 일본자동차 업계, 멕시코에서 투자 가속화
- 일본기업의 해외생산비율 18.1%로 상승

☐ 경제산업성 동향

- 원전비율, 최대 35%로 설정
- 독립행정법인의 해외사무소 기능 통합

☐ 보고서 리뷰

-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생산위탁』, 경제산업연구소,
3월 27일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샤프, EMS분야의 세계최대기업인 홍하이와 자본제휴

- 샤프가 27일 EMS분야(전자기기의 수탁제조 서비스)에서 세계 최대기업인 대만 홍하이정밀공업과 자본제휴를 발표. 홍하이그룹이 샤프의 주식 10%를 취득
 - 홍하이는 액정패널의 일본 주력거점인 사카이공장에도 46%를 출자
- 샤프는 액정 패널에서 박형 TV까지의 일관생산모델을 전환, 홍하이와 제휴로 코스트 경쟁력 강화와 경영재건을 모색
 - 샤프의 주력 공장인 사카이공장은 작년 말까지 80%~90%의 가동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세계적인 TV판매부진 가격하락으로 가동율이 50%로 떨어짐
- 샤프의 출자비율은 현재 93%에서 약 46%로 낮아졌고, 약 7%를 출자한 소니는 향후 보유주식을 샤프에 매각할 공산이 큼
 - 샤프는 증자와 자회사주식 매각을 통해 1300억엔을 조달하여 액정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충당할 계획
- 일본의 대형 전자메이커가 해외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번 자본제휴는 샤프가 홍하이에게 사실상 구제요청을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소비세증세 관련법안 각의 결정, 증세를 위한 전제조건 두지 않기로

- 일본정부가 30일 각의에서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을 결정. 법안심의 과정에서 증세의 전제조건과 추가 증세 가능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증세의 전제조건은 두지 않되, 추가 증세 가능성 조항은 남겨두는 쪽으로 절충
 -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8%, 2015년에는 10%로 각각 인상하되, 성장률을 증세의 전제조건으로 하지는 않음
 - 2008년 리먼쇼크와 같은 경제비상시에 대비하여, 세율인상 전에 경제지표를 판단하여 증세를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두되, 증세의 전제조건으로 하지는 않음.
 - 소비세율이 10%가 된 이후에 증세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

◆ 일본기업전략

□ 일본자동차 업계, 멕시코에서 투자 가속화

-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들이 잇따라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 일본의 자동차 4개사의 생산능력이 2010년대 후반에는 현재의 3배인 200만대 규모에 이를 전망
 - 혼다는 멕시코 중부에서 8억달러를 투자 연산 200만대의 신규공장을 착공하였고, 닛산자동차와 마쓰다도 신규공장을 건설할 예정
 - 일본 자동차 업계의 멕시코 투자는 FTA에 적극적인 멕시코를 세계적인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멕시코정부는 최근 브라질의 요구로 브라질에 대한 승용차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아르헨티나도 멕시코에 수출제한을 요구하고 있어, 각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일본계 기업들의 수출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멕시코는 일본에 이어 실질적인 제2의 수출거점(미국과 중국은 주로 현지 시장판매이기 때문에 수출은 아님)이나, 남미 각국의 통상정책 동향 여하에 따라서는 멕시코를 수출거점으로 하는 구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일본기업의 해외생산비율 18.1%로 상승

- 경제산업성이 28일 발표한 2010년도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에 의하면,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18.1%로 전년대비 1.1%포인트 상승, 해외설비투자는 17.1%로 1.2%포인트 상승
 - 통신기기 및 범용기기 업종이 상승한 반면, 수송기기와 전기기계 등 2개 업종의 해외생산비율이 약간 감소
-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11.4% 증가하였고, 정보통신기기계의 증가율이 큼
 - 지역별로는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이 모두 증가
 - 경상이익은 10.9조엔으로 56.3% 증가, 당기순이익도 7.7조엔으로 64.3% 증가하여 리먼 쇼크 이전의 수준을 회복
-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 이유는 향후 수요 확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조사대상기업의 73.4%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경제산업성 동향

□ 원전비율, 최대 35%까지 설정

-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관인 종합에너지조사회가 27일 기본문제소위원회를 개최, 2030년에 원자력발전 등 전원구성 비율에 관한 안을 제시하였는데, 원전의 최대비율을 35%로 설정
 - 소위원회는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등을 시산한 후, 5월 중순경 최종안을 정부 에너지·환경회의에 제출할 예정
- 제시된 안은 6가지로, 원전비율 20%~25%의 케이스에는 각각 재생가능에너지와 화력발전의 조합을 2가지 패턴으로 제시
 - 원전비율이 제로인 안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최대 35%.
- 연간 총발전량은 2010년도 대비 10%감소를 상정. 현행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감소로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음
- 제출안에는 수치를 설정하지 않고 시장의 선택에 맡기는 안도 포함하고 있음
 - 석유 등 화석원료에 대한 과세로 화력발전을 억제하거나, 이용자가 자유롭게 전력회사를 선택하는 시장을 정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전원구성을 실현
- 그러나 또한 원전비율 35% 설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전을 증설해야 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독립행정법인의 해외사무소 기능 통합

- 「독립행정법인의 제도 및 조직개편 기본방침(2012년 1월24일 각의 결정)」에 의거하여, 국제 업무형 독립행정법인(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국제협력기구, 국제교류기금, 국제관광진흥기구 등 4개 법인)의 해외사무소를 기능을 통합
 - 3개 법인 이상의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16개 도시에 대해, 경제산업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및 4개 법인이 협의하여 기능적인 통합을 검토

◆ 보고서 리뷰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생산위탁』

경제산업연구소, 3월 27일

- 최근에는 대기업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국제화(수출, 해외직접투자, 해외생산위탁)가 진전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일본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기업레벨의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는 이제까지 대기업의 국제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동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생산위탁(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자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것도 포함)의 결정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의의가 있음
- 특히, 기업이 해외생산위탁 및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국내고용이 감소하여 공동화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의해 국내고용이 감소한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님
- 본 연구는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진출에 의한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해외업무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쪽이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보다도 오히려 평균적으로는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본 연구의 계량분석결과에서도 해외진출과 고용과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게다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증가하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음
 -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공장의 폐쇄 등으로 국내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는 보다 기능집약적인 업무, 예들 들면,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 경영관리, 제품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관련업무의 고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해외진출로 인해 전체 고용량이 변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며, 해외진출을 함으로써 종업원의 대졸 비율은 훨씬 높아지고 있음

□ 시사점

- 이상의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공동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이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
-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국제화에 수반하여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인력의 고급화와 기업의 국제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출처:<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2030006.html>

【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

- (1) 『엔저로 일본의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인가』 스미토모 신탁은행, 3월24일

*출처:<http://www.smtb.jp/>

- (2)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생산위탁』 경제산업연구소, 3월27일

*출처:<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2030006.html>

- (3) 『수직적 통합시장에서 전략적인 직접투자』 경제산업연구소, 3월27일

*출처:<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2030005.html>

- (4) 『일본 무역수지의 중기전망』 일본종합연구소, 3월27일

*출처:<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pdf/company/release/2012/120326/120326.pdf>

- (5) 『제41회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결과 개요』 경제산업성, 3월29일

*출처:http://www.meti.go.jp/statistics/tyo/kaigaizi/result/result_41/result_41.html

- (6) 『일본의 통계』 총무성, 통계국 3월30일

*출처:<http://www.stat.go.jp/data/nihon/index.htm>